

마그립 지역 노랫말 텍스트를 통해 본 마그립  
인의 의식구조 연구  
: 모로코, 튀니지 지역을 중심으로\*

윤은경\*\*

**Yun, Eun Kyeong, 2008, A Study on the Maghreb People's Way of Thinking through the Texts of Maghreb Songs - focused on Morocco & Tunis. *Arabic Language & Literature*. Vol. 12, No. 1, pp. 223-253.**

In general, we can say that the music of one country represent the life and culture of the people. And the domain of popular and folk music often provides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ultural traits of a nation's character. It means that one can often illustrate the spirit and beliefs of the people by studying the types of songs, the styles, music related social occasions and musical traditions. Moroccan and Tunisian music is of many types; it includes Arab, Berber, classical, and popular elements. Musicians perform in concerts, in cafes, at private homes, at circumcision ceremonies, marriages, funerals, and religious processions and in accompaniment to dancing and storytelling. Classical music in the Moroccan sense is the Andalusian music of the tenth to fifteenth centuries. It is extremely complicated in musical structure, and its lyrics are characterized by the strict use of the Andalusian dialect or classical Arabic and by the construction of verse in the style of classical poetry.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S0146).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강사

Especially Moroccan and Tunisian folk songs exhibiting such traits existed in the Islamic culture and was sung and played by the people. The functions of popular and folk music may be divided into two main divisions. The first division usually refers to music attached to social occasions, which covers such celebrations whether of rejoicing or wedding. The second division comprises songs of love and covers a wide field in the everyday life of the Maghreb society. This study is aimed to illustrate characteristics of Moroccan , Tunisian songs and find the Maghreb people's way of thinking through the texts of songs by classifying motifs of songs focused on religion, and social life and gender. The Maghreb songs express happiness and sorrows and religious beliefs of the people. We can divide several categories of the Maghreb songs motives. They are religious song, lamentation, songs of joy, love-songs and songs of wedding.

[Key Words: Maghreb, Moroccan Song, Tunisian Song, Popular Song, Folk Song, Underlying Culture/ 마그립, 모로코 노래, 튀니지 노래, 대중가요, 서민가요, 기층문화]

## I. 서론

일반적으로 아랍 음악은 지리적으로 아틀라스산맥과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부터 아랍걸프 지역 및 유프라테스 강 유역 등지에서 불리어지는 음악을 말한다. 아랍지역의 노랫말은 이슬람 이전 시대인 자힐리야(jahiliyah) 시대부터 존재한 시(詩)의 영향과 이슬람 이후에 규범화된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부족 중심 사회에서는 시를 운율에 맞추어 불렀으며, 그 내용은 부족의 단결과 평안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 이후 코란 낭송법의 발달은 전통적인 음악적 리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후의 아랍음악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윤은경 2007: 228).

대중가요는 일반대중들이 향유하는 서민문화에 속하며,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곡과 결합하여 서민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대중가요의 노랫말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정서, 사회상이 직간접적으로 담겨있다. 노래의 곡이 시대마다 기층 서민의 사회, 문화적 욕구에 따라 형식이 변하는 것처럼 노랫말에도 그 시대를 사는 서민의 삶과 의식이 담겨있다. 이는 곧 노랫말 연구를 통해 각 시대의 문화 현상과 사회상, 서민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랍어 노랫말을 통해서 아랍 서민 기층문화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1차년 도에서 이집트 지역 노랫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2차년 도에는 마그립 지역 의 노랫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슬람의 등장 이래 14세기 간 이어진 아랍 음악 중에서 특히 마그립 지역의 노랫말에 나타난 성(聖)과 속(俗)의 표현을 찾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그립 지역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 서민들의 의식구조를 밝혀내고자 한다.<sup>1)</sup> 아랍인들이 이루어낸 기층문화의 한 축으로서의 노랫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사회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 차원 높은 마그립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마그립 지역 노래 개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아랍 노래에서 성(聖)의 측면은 종교 음악을, 속(俗)의 측면은 세속 음악을 의미한다. 아랍 지역에서 성(聖) 측면과 관련된 종교 음악으로는 이슬람 사원의 음악, 수피(sūfī, 이슬람 신비주의) 음악, 통속적인 종교음악을 포함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은 이슬람 경전 코란 낭송법과 아잔(Adhān)<sup>2)</sup> 수행 시 나타나는 독특한 운율을 들 수

1) 일반적으로 마그립지역에는 모로코, 튀니지 뿐 아니라 알제리, 리비아 까지 포함되나 현지 조사의 어려움과 자료 수집의 난제로 인해 본 연구의 대상을 모로코와 튀니지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알리는 소리

있다. 이 아잔 운율은 코란 낭송처럼 정형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 아랍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이슬람권에 걸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Annon Shiloah 1995: 7). 수피 음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고무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피들만의 독특한 운율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 간에 발생하는 수피 음악의 차이는 저마다의 토착 신앙과 전통 및 이슬람 요소가 결합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통속적인 종교음악은 이슬람 종교와 성인을 찬양하는 노랫말을 말하는 것으로, 구어체 노랫말과 곡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인해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아랍 지역의 세속적인 노랫말로는 군가, 남녀 간의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 등을 들 수 있다. 속(俗)의 측면에서 다루게 될 세속 음악은 연구대상 지역 간의 환경에 따라 곡과 노랫말에서 차이와 특징을 보인다.

모로코와 튀니지가 속한 마그립 지역은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그리고 아프리카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북서부 지역이다. 이곳은 아랍 역사에서 지리적으로 유럽 음악, 특히 안달루스(스페인 남부) 음악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모로코는 안달루스 고전 음악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로 모로코 전역에 있는 학교에서 안달루스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종교 행사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아랍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모로코에서는 영적인 의식을 수행할 때 다양한 장르의 수피 음악을 사용하여 대중화하였다. 아랍문화의 기준에서 본다면 모로코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예술적 전통을 이뤄왔다.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안달루스 지방에서 발달한 고전음악이나 마그립지역의 토착 주민인 베르베르족의 설화음악에서부터 현대 아프리카, 프랑스, 팝, 락의 퓨전음악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공존하고 있다. 알제리 음악에 더 가깝긴 하지만 라이(Rai) 음악은 모로코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라이음악은 원래 아랍어 'Ra'iy(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다 자유롭고 서양 음악의 리듬과 특징을 포함한 음악 장르이다. 아랍 음악에 기인하고 있고 동시에 아프리카의 리듬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다양한 전자악기를 사용하여 가장 서구화된 스타일을 추구한다.

마그립 지역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들의 민속 음악은, 마그립 지역의 공식어가 아랍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인 베르베르어로 노랫말이 구전으로 보존되어 왔다. 베르베르 음악은 전통적인 토속 민속음악으로 공동체를 위한 음악이자 의례를 행할 때 사용하던 음악이다. 고음의 선율을 연주하는 피리 소리와 노래가 어우러져 토속적인 아프리카의 색채를 전해준다. 현대에는 샤비(Sha'bi) 밴드의 락(Rock) 장르가 모로코 전역에 퍼져있다. 이 장르는 무슬림 음악에 역사적 기원을 둔 트랜스 음악으로서 종교적인 색채와 유럽풍이 가미된 노래이다.

마그립 지역의 또 다른 국가인 튀니지에는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안달루스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전래된 마으루프(Ma'luf, '표준', '보통'이란 의미)라는 튀니지만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있다. 튀니지 음악에는 유럽의 안달루스, 프랑스 음악의 영향뿐만 아니라 리비아 음악, 그리고 오스만 터키 지배 기간에 뿌리 내린 터키 음악이 혼합되어 있다. 튀니지는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화가 융화되어 있으며 특히 음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하여 매년 박물관이나 고대 유적지에서 각종 음악 축제가 개최된다. 특히 튀니지는 여성 연주자들로만 구성된 '알 아지파트(al- 'Azifât)와 남부 카세린(Kasserine) 지방의 민속공연단이 유명한데 몇 년 전 '튀니지의 꿈, 열정 - 지중해, 꿈의 리듬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국내 공연을 한 바 있다. 튀니지 남부 카세린 지방의 민속공연단은 런던, 파리, 카이로, 워싱턴, 뉴욕, 로마, 마드리드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수준급의 예술단이다. 이 예술단은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사막의 전사들에게 아낙네들이 춤을 추며 안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내용의 튀니지 민속춤 예술을 보존하고 있는 단체이다. 알 아지파트는 튀니지 국립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아미나 스라르피(Amina srarfi)'가 1992년 3월 여성들로만 구성된 연주단이다. 아미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까두르 스라르피(Kaddour Srarfi)' 음악학교를 설립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새로운 음악세계를 개척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알 아지파트 연주단은 마으루

프와 기타 전통적인 음악들 즉 ‘투라쓰(Turāth, 문화유산)’라고 알려진 곡들을 주요 레퍼토리로 연주하고 있으며 튀니지뿐만 아니라 전 아랍세계에서 오리엔탈 음악과 튀니지의 음악들을 연주하는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단이다. 12- 15명의 여성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바이올린과 우드(‘ūd), 카눈(qanūn), 나이(nay), 더블베이스, 다르부카(darbukka), 타르(tar), 피아노 등의 악기들을 연주한다. 알 아지파트 연주단은 튀니지 전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각종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여러 아랍 국가들에서 해외공연을 가진 바 있다.<sup>3)</sup> 알 아지파트 연주단이 주로 연주하는 음악들은 프랑스어와 튀니지 구어체 아랍어 방언들이 섞여있는 ‘셰이크 알 이프리트(Shaykh al-‘ifrit)’와 ‘하비바 미카(habibah Mika)’라는 동시대의 노래들, ‘무함마드 트리키(Muhammad Triki)’, ‘알리 리아히(‘Ali Riahi)’, ‘살리흐 알 마흐디(Salih al-Mahdi)’, ‘카두르 스타라르피(Kaddur Srarfi)’ 등의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들이다.

### Ⅲ. 마그립 지역의 서민가요

일반적으로 서민가요는 그 기원이 알려지지 않고 오래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진 노래이다. 서민가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래의 작곡가나 작사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전파 된다는 것이다. 서민가요의 특성상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래의 곡조나 가사 면에서 변경과 수정이 이루어진다. 서민가요는 노래를 부르는 서민들의 바람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해준다. 그런 면에서 노래는 서민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우리는 노래를 통해 서민의 전통과 풍습, 사상 및 다양한 열망, 바램들을 알 수 있다.

마그립 지역 중 튀니지의 서민 가요는 서민들의 분노 및 노여움, 희망과

3) 2005년 6월 17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신념,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튀니지의 서민가요 중에는 ‘우루비(al- ‘urūbī)’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특히 대부분의 주제가 속담이나 격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정의나 권선징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사물의 묘사나 사랑, 그리움 등의 감정을 묘사하기도 한다.

무함마드 부디나(Muhammad būdīnah)에 의하면 ‘우루비’에는 두 종류가 있다(Būdīnah 1999: 21). 첫 번째 종류는 ‘따와히(al-ṭawāḥiy)’라는 것이다. 따와히라는 이름은 목소리를 늘려 곡을 쭉 길게 뽑거나 정서를 담아 노래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이 종류는 ‘살리흐(al- ṣālīḥ)’라고 불리는 길게 늘어진 곡을 노래하기 때문인데, 곡의 첫 창시자가 사파키스 남부에 거주하는 나파트 부족의 살리흐 본 칼리파(ṣālīḥ bn khalīfah)’ 이다. 두 번째 종류는 ‘바시뜨(al- Basīṭ)’이다. 바시뜨는 노래를 부른 다기 보다는 이야기를 인용하거나 서술하는 형식으로 특정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불리는 것이 많다. 따라서 바시뜨의 경우 각운이나 형식에서 불균형한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 무함마드 부디나는 ‘우루비’라는 단어가 4행시를 의미하는 ‘루부이(al - rubū‘ī)’와 연관되었다고 본다. 즉 루부이에서 자음 도치가 되어 우루비라는 이름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4행시는 대부분 4행으로 구성되어지며 ‘루바이야트(rubā‘iyāt)’로 불린다. 튀니지의 우루비 중 사랑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노래들을 보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단순한듯하면서도 특유의 은유와 비유 등의 방법으로 사랑과 연민의 세심한 감정, 정열, 지고 지순한 감정들을 표현 하고 있다(Būdīnah 1987: 47).

모로코의 서민가요의 특징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 또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의 노래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곡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모로코의 우루비 역시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의 감정을 다룬다. 그것은 연인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애절한 감정을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덧붙

여지면서 훌륭한 문학적 유산으로 남겨졌다. 모로코 우루비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로서 이러한 우루비는 소설 속에도 등장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로 부터 그들의 딸에게 이르기까지 전수되지만 작곡가나 작사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우루비를 지은 여성들은 그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며 약혼자나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알려질 것을 부끄러워한다. 우루비는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 노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 여성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 기쁘게 자가리드(Zaghārid)<sup>4)</sup>를 시작한다. 그 슬픔은 대부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 그리고 연인과의 말다툼이나 불화에서 오는 아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로코 우루비는 주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반대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사들이 ‘사랑(hubb)’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habībī)’이라는 남성 형 단어로 부르고 있다. 모로코 우루비는 대부분 네 개의 행으로 구성되며 4행시로 불린다. 그러나 가끔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많은 우루비들의 가사는 대부분 10개의 행을 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은 아랍의 정형시에도 나타나는데 노래에 쓰이는 시를 쓰는 시인들은 동부지역 우루비들 처럼 시 운율의 일부를 지키지 않기도 한다. 그것을 통해 그녀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같은 자연스러움, 일종의 자유로움이 나타난다. 모로코 우루비에서는 4개 행 뒤에 하나의 행을 붙이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는데 이를 ‘타드빌라(al-tadhbilah)’라고 부른다 (Rakuk 2000: 13). 모로코 우루비 노랫말은 주로 희망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고취시키거나 이별의 슬픔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신실한 신념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많은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것을 덕목으로 하는 모로코인들의 의식 구조를 엿볼 수 있다.

4) 주로 결혼식이나 기쁜 행사 때 아랍여성들이 혀를 굴려 크게 떨리는 소리 내는 것.

## IV. 마그립 지역 노랫말에서의 聖俗 관련 주요 모티프

### 4.1. 종교

음악과 종교의 관계는 대단히 깊어 전 세계 모든 종교는 각각 독자적인 종교음악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양식이나 종류도 매우 많다. 형체가 없는 음으로 구성된 음악이 논리를 초월해서 직접적인 감동을 준다는 점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체험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음악의 기원과도 결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교의 경우 음악이 관능적 쾌락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교의 상 예배에서 음악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코란 낭송이나 예배 시각을 알리는 아잔과 같이 교의와 무관하게 음악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랍 세계의 종교 음악으로는 이슬람 사원의 음악, 수피음악, 통속적인 종교 음악 등이 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은 이슬람 경전 코란 낭송법과 아잔 수행 시 나타나는 독특한 운율을 들 수 있다. 이 아잔 운율은 코란 낭송처럼 정형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 아랍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이슬람권에 걸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수피 음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고무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피들만의 독특한 운율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 간에 발생하는 수피 음악의 차이는 저마다의 토착 신앙과 전통 및 이슬람 요소가 결합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통속적인 종교음악은 이슬람 종교와 성인을 찬양하는 노랫말을 말하는 것으로, 문어체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가 섞인 노랫말과 곡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인해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마그립 사회의 종교 음악 역시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민들이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마그립 지역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의 종교 음악은 서민들이 기념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나 기념일, 명절, 축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모로코와 튀니지 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 기념행사로는 선지자 탄신일이

나 성지 순례 등이 있다. 이러한 종교 기념행사에서 불리어 지는 노래는 이슬람의 교리,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노래들에 비해 경건함과 신성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 음악의 모티프는 주로 종교적 이야기들, 신의 전지전능함, 코란에 계시된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거나 선지자나 성인들이 행한 기적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슬람과 아랍 국가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코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랍 음악들이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때로는 코란 구절을 그대로 노래하거나 알라에 대한 경외심, 믿음, 신앙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슬람은 아랍 음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음악적 표현에 있어, 종교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과 아랍 음악 간의 관계는 매우 크며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은 아랍 음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음악적 표현에 있어, 종교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래 가사 속에서도 종교적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알라에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알라’, ‘오, 주여’ 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들도 있다. 특히 튀니지에서 유명한 ‘ ‘allah yaf'al mā yashā'a( 신은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노래는 튀니지의 전통 가요로서 신에 대한 경이감, 종교적 주제를 담고 있다.

모로코 노랫말에서 종교와 관련된 모티프는 성인(聖人), 신(神), 사도 무함마드, 이맘 등에 관련된 것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복종, 사도와 성인 찬양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Rakuk 2000: 23).

"bismillāh bāsha bidinā rāh irji'una allāh  
yā rabb yā khāliq al-khalq .. yā rabb al-'ibād  
wa man qad qult fi l-qurān 'ud'ūni  
innani da'awtuka mudjāran fa khud biyadi..  
(우리 주... 신의 이름으로.. 신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니..)

오, 주여.. 인류의 창조주여.. 기도의 주여..  
당신은 코란에서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기도하라..  
실로 나는 당신에게 기도 하였으니.. 내 손을 잡으소서..)

위 노래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이 모두가 알라에게 귀의 할 수 있도록 노랫말 자체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라에게 기도 할 것을 훈시하면서 천국과 지옥, 죄와 벌 등에 대한 얘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옥 불구덩이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도만이 알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그립 지역의 노래들 중에는 이슬람의 종교 축제나 명절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다. 이슬람의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슬람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슬람력 12월 10일이 우리가 쓰는 달력의 12월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람력은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해 간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한다.<sup>5)</sup> 라마단과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핫지(al-hajj)와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는 코란에 명시되어 있고, 무함마드와 다른 이맘의 생일은 가족들이 모여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기념일'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6)</sup>

5) 이슬람의 달력은 음력과 같이 달의 순환주기에 따른다. 따라서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은 새로운 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며, 달의 주기는 29.5일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한 달은 달의 위치에 따라 29일 혹은 30일로 되어 1년이 354일이 된다. 즉, 양력보다 11일이 짧다. 그 결과 이슬람 달력은 서양력과 유대의 달력 그리고 음력과는 다르게 사계절이 맞지 않으며, 매년 약간씩 일찍 시작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해의 한여름에 라마단이 시작되었다면, 그 해로부터 16년 4개월 후에는 한겨울에 라마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32년 8개월을 주기로 이슬람의 달력과 사계절이 바뀐다.

6) 마우리드(Al-Mawlid)는 이슬람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저명한 인물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벌이는 대중적인 축제로, 보통 그 인물과 매우 연관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벌어진다. 이슬람력 새해 기념일인 하즈라(Hijrah)에는 하루 동안 기도와 예배로 이슬람력

이러한 종교적 축제와 명절에는 사원이나 예배당, 마을 등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며 며칠간 축제가 이어진다. 사원이나 예배당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기도, 코란과 하디스 암송 등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의 축제 때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불리어진다. 다음은 튀니지 지역에서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 등의 명절에 불리어지는 노래들이다(Hasan 1984: 45-48).

“ṣalli ya rabb thumma sallim ‘alla man huwa lilḥalq raḥmah  
wa shafa’

wa ‘alla al-‘ali wa assaḥabah jam’an ma tazayyanat binnujum sama’  
kayfa tarqa ruḥiyaka al ‘anbiya’ ya sama’ ma tawalatha sama’  
‘anta misbaḥ kulli fadl fama taṣdur ‘illa ‘an daw’ika al ‘adwa’  
laka dhat al-‘ullum min ‘alam al-ghayb ..”

(주여, 기도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오 하늘이여..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로 장식되었는지.. 오 주여.. 당신은 모든 미덕의 등불이며 진지전능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비의 세계의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 ya khaliq al-bariyyah judli bikhayr manni

---

새해를 기념한다. 그 외의 무함마드 승천 기념일에는 예언자가 메카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7개로 된 하늘로 가서 하느님(알라)을 만난 것을 하루 동안 예배로서 기념한다(전완경,1999:46). 마그립 지역의 종교 축제나 명절은 다음과 같다(al- Sadiq al-Rizqi , 1967: 75-76). 3월 중순경의 무함마드 탄신일(al-Maulid an-Nabawi),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ā),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7월의 첫번째 금요일(희망의 금요일), 7월 27일(무함마드 승천일) 8월 중순(Shaban), 용서의 밤(Laylat ul-Barat), 9월 라마단, 특히 라마단의 중순에는 이슬람에서 코란이 계시되었다고 여겨지는 ‘운명의 밤(Laylat al-Qadr)’으로 불리는 명절이 있다. 또한 그것은 새해 벽두의 밤이라 불리며 하지의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1월 1일 연초가 있으며 후세인 순교일인 1월 10일 아슈라(‘Ashura)가 있고 이 외에도 12명의 이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다(이규철, 임병필 2003: 113)

wa 'ajzal al-'atīyah wa ḥaqqiq fika zanni..  
ya jamilu alsitr habb lana alshifa' qad tawassalna bijahi  
al-muṣṭafa  
wa bijahi al'al wa alashab man khassasu bil fadl min ghayr  
khafa.. "

(인간의 조물주여, 나의 논쟁이 잘 되기를... 많은 선물을 주시고.. 당신에게서 예견을 얻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호자여..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위대한 공적을 세우신 무스타파와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주었듯이... 치유를 주십시오.. )

" ya mawlaya .. laysa al 'id li man nasaba al khiyam  
'innama al 'id liman tuqubbila minhu al ṣiyam  
ya mawlaya .. laysa ai'id li man bakhkhara bil 'ud  
'innama al 'id liman faza yawma al wu'ud..  
ya mawlaya .. laysa ai'id li man rakiba al mataya  
'innama al 'id liman tuqubbilat minhu al dāḥaya..."

(오 주여.. 이 명절은 천막을 치는 자들을 위한 명절이 아닙니다. 이 명절은 단식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신이시여, 이 명절은 우드를 연주하며 즐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날, 부활의 날을 믿는 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오 주여.. 축제는 가축을 타는 자를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자를 위한 축제입니다..)

이 노랫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로코와 튀니지 인들 역시 생활 속에서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를 잘 지키고자 애쓰며 이슬람의 오주를 잘 지키는 것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특히 라마단을 맞아 금식하며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고 본능적인 욕구와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식 구조를 알 수 있다. 라

마단 기간의 금식은 무슬림들의 의무로써 코란에도 명시되어있다. 무슬림들은 바로 이 라마단 달에 무함마드가 코란에 포함되어 있는 신의 계시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믿으며, 보통 코란을 매일 30번 이상 읽으려 노력한다. 이 기간 동안 음식물은 가능한 한 가장 늦은 새벽녘에 먹고 해가 뜬 후부터는 금식한다. 그리고 기도는 해가 뜬 뒤에 시작된다. 이 달에는 밤중에 추가 예배를 하는데, 저녁 예배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계속되고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원에서는 합동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실천해야 할 ‘강조되는 전통’이다.

무슬림들이 종교적 의무의 수행을 위해 단식을 행하고, 라마단 성월의 단식이 끝나면 3일간의 명절이 이어지는데, 이 축제가 바로 단식을 마치는 것을 축하하는 ‘이드 알 피트르’이다. 축제 첫날 무슬림들은 목욕재계하고 가장 좋은 의복을 찾아 입고 아침 일찍 가까운 모스크로 향한다. 축제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준비한 성찬을 들며 단식을 마무리한다. 라마단 달을 통해 평상시에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거나 종교적 수행을 게을리 했던 것을 반성하는데, 이 단식을 견뎌낸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한 것에 대한 기쁨을 이드 알피트르 축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드 알 아드하는 성지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지순례는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건강한 무슬림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같은 색깔과 같은 형태의 의복을 입고 같은 규정, 같은 예식, 같은 시간, 같은 목적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빈부와 상하, 지위의 구별이 없는 보편성과 평등사상을 고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지순례가 끝나는 10일에 순례 객들은 메카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무슬림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양이나 다른 동물을 신의 이름으로 희생시킨다. 바로 이날이 이드 알아드하이며 무슬림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다. 무슬림들은 이 축제를 함으로써 형제애와 공동체적 연대감, 평등사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종교적 믿음과 확신들이 노래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모로코와 튀니지인들의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과 전지전능한 하나님

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현대 가요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은 ‘아흐마드, 나의 사랑이여(‘Ahmad ya habibi)이라는 노래이다.

“ ‘ahmad ya habib ya habibi salam ‘alek.. ya ‘awn el-gharibi,  
salam ‘alek ya ‘awn el-gharib 'ahmad ya habibi salam ‘alek ..  
nebda bit-tawhid salam ‘alek nebda bil-tamjid salam ‘alek  
nebda bil-Qur'an salam ‘alek min 'andir-rahman salam ‘alek  
'amnun wa salamun salam ‘alek dinuk al-'Islam salam ‘alek  
min rabbin rahimin salam ‘alek min rabbin karimin salam ‘alek  
(나의 사랑 아흐마드..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오 이방인의 조력자여..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오 이방인의  
조력자여.. 나의 사랑, 아흐마드..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신만이 유일하심을 맹세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가  
기를..  
신만이 위대하심을 맹세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가  
기를..  
코란으로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신의 자비로움으로부터...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안전과 평화로움이...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당신의 종교는 이슬람..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자비로우신 주님으로부터...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인자하신 주님으로부터...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

이슬람에서 알라를 천지를 창조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심판을 하는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고 믿는다. 더 구체적으로, 코란(1:156)에서는 우주, 인간, 만물의 존재 원인과 소멸 원인을 신에게 귀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평화의 세계 (Islam)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유일신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주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al-Shahādah)에서 나오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코란 5장 76절에 나오는 “절대 신은 삼위 중에 한분이 아니도다”, “그분께는 아들이 없으며” (코란 2장 116절)등의 구절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절대적인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일신으로서의 알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무슬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신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유일신 알라에 대한 경외심과 종교적 믿음은 마그립 지역 노랫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 4.2. 성(性)

모로코와 튀니지 지역 노랫말에서 성의 주제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노랫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결혼이나 연인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슬픔 등의 모티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튀니지 서민 가요의 노랫말은 서민들의 분노 및 노여움, 희망과 신념,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우루비 노래들이 사랑의 감정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단순한 듯 하면서도 특유의 은유나 비유 등의 방법으로 사랑의 다양한 감정들을 훌륭하게 표현한다. 사랑과 연민의 섬세한 감정, 정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맹목적 순종, 지고지순한 감정들을 표현 하고 있다(Būdinah 1999: 78-80).

“ idha banayta arkaz assās wa armi alḥajr shughl quwa  
wa idha arafta 'a'rif annās... ahl alfadhil wa lmurwa..”  
(만일 당신이 (건물을) 짓는다면 나는 기초를 자리 잡고..  
튼튼하게 힘이 되도록 돌맹이를 쌓지요..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아는 것

이지요..

그 사람들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지고지순함과 사랑하는 연인이 하는 행동이나 알고 있는 지인들은 모두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라 믿는 맹목적 신의가 옛 보인다.

“ ana algharib almulawih la hay lali mawalli  
nabki nu'adidu nunawih 'ala firqati fi ghazali  
al'ayam 'adaituhum maraf sabab mardati bilghabinah  
namshi jahamatan 'ala l'ard' fi wasaf suqi lmadinah  
khayif min lakati l'ard' wa shamatiatu nnas fina..”

(나는 이방인, 손을 흔들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야 마왈리...)

우리들은 울면서... 추도하며,, 애도하지... 나의 연사에서 나의 이별을...

세월은 그들에게 병을 가져다주었지... 내 병의 원인은 사랑에 기만당한 것..

우리들은 우울해하며 마디나 시장 가운데 땅위를 걸었지...

물건 장수들의 중얼거림 들이 두렵고.. 사람들은 우리들을 고소해했지..)

이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의 고통, 슬픔들이 나타난다. 마치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 ba'ada al'asha' raytu najamaat maththalatum sifat ghazali  
yudarijihu mithla wardat ma bayna karum addawali

tamannayt ruhy tarākum fi l ‘ām wlaw sā‘ah  
qalbi istahash liqakum ...”

(저녁을 먹고 나서 별들을 보았지.. 영양의 눈처럼 영롱한..  
이웃집 넝쿨 사이 장미 처럼 점점 더 짙어가고..  
내 영혼은 그대를 보기를 원했지.. 일년에 단 한시간이라도..  
내 심장은 그대와의 만남을 갈구했지..)

“ ḥubu annisā‘ nār ḥar man taba‘ahum bāta shāqi  
gharas wa la fiḥ thamarah w al‘ayn tajri sawāqi  
jarāli kama dhayb ‘amrh khadda‘ wa māta shāqi ”

(여성의 사랑은 뜨거운 불이지.. 그것이 따르는 사람들은 피로  
워지지..  
심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지.. 물 길 따라 흘러가는 샘물이지..  
그 생명이 녹아있듯이 내게로 흘러와.. 나를 기만하고 괴로워하  
며 죽어갔지..)

al ḥub yaqtulu billa sayf w billa damm yajri nashufuh  
w illi ‘ashiqu assamḥ wa azzarif w maḥabbatu kayfa tuwwafi  
al ḥub yaqtalu kama al ḥub ḥub ‘in sakana fi aljawaji  
ṣaḥn kibdati raddaha damm ḥār ṭabib fi ‘illāji

(사랑은 칼 없이도 사람을 죽이지.. 눈에 보이는 피가 없이도..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여.. 그 사랑을 어떻게 충실  
히 지킬까....  
사랑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만일 사랑이 그 안에 살고 있다  
면..

나의 간을 바쳐서... 피로써 답을 하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지..)

모로코 서민가요 우루비의 노랫말은 주로 희망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인  
생관을 고취시키거나 이별의 슬픔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신실

한 신념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많은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것을 덕목으로 하는 모로코인들의 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다. 다음은 모로코 우루비 중 사랑에 관련된 노래의 일부이다(Rakuk 2000: 29).

“gharrid ya ḥamām wa a'ṭatuk alayām  
wa lma wa azawan fi qafaṣik ma'umūl  
sallamat lakum fi māikum wa zawānikum  
taghridah bayna shshajar tatuhhay alabṣār  
man 'ashiq azzain ya mawāli ma yakun illa ṣabbār”  
( 노래를 불러라 비둘기여.. 그 날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새장 속에는 물과 먹을 것이 펼쳐져 있고..  
너희가 가진 것들에.. 먹을 것들에 인사를 했지..  
나무 사이로 새의 노래 소리가... 두 눈에 생기가 도네..  
예쁜 꽃을 사랑 하는 이여.. 선인장처럼 참을성 강한 자가 될 수  
밖에..)

위 노래에서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기쁨과 행복감이 드러나 있는 반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비둘기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노랫말도 있다. 다음의 노래에서도 사랑에 관련된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선남선녀들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 마그립 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민가요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특히 처녀들에게 남의 이목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에 대한 숨김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 sa'altuka billahi ya ḥamāmah fauqa assūr

janhuka maksūr rak zidtu ma bi  
'anti tabki 'ala janhuki lmaksūr wa ana nabki 'ala ḥabibi ghadar  
fiya  
alwalf ṣa'ib w lmaḥabbah zughbiyah.. ”  
( 맹세코 너에게 묻노니.. 담장 위 비둘기야..  
네 날개는 부러져.. 너도 나처럼 슬프겠구나..  
너는 부러진 날개 때문에 울고.. 나는 나를 떠나간 연인 때문에  
우네..  
동반자란 힘들기 마련이지.. 사랑도 힘들고...)

“ ya maḥbubi ḥabni kayfa nuḥibuk  
wa ba'da lmaḥabati ishrakuni fika annās  
w illa kunt khātim iṣba'i lak qiyās  
wa illa kunt tahlil aldhahab ana laka hamālah  
wa illa kunt kitāb ana nunaZīru fika.. ”  
(오 나의 연인..사랑이여.. 어떻게 그대를 사랑할까요..  
이 사랑 뒤에 사람들은 나를 당신과 동반자라 부르겠지요..  
당신을 위한 내 손가락의 반지를 맞춰야겠지요..  
그대를 위해서 내가 금이라도 가져와야겠지요..  
우리의 서약을 위해 책이라도 준비하겠어요...)

“ya maḥbubi kulla yawm naqul al yawm  
w la bata 'ayam il habib tuwafini..  
khawfi min hadha hal 'alaye yadum  
wela dama 'alayya yaqtuluni w yafnini  
ghayruka ma nuwafih wlaw yughnini..”  
( 오 나의 연인이여.. 매일 우리는 오늘이라 말하지요..  
사랑의 날들이 나를 데려가려하네요...)

이대로 계속될까 두렵기도 하지요..  
그것이 나를 죽이거나 소멸시키지 않는 한..  
당신 외 그 누구도 따르지 않겠어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데  
도...)

위 노래들에서 나타나는 모로코인들의 의식 구조는 크게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절망과 고통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삶, 그 자체인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가요가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나 비중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궁핍한 생활과 노동에 시달리면서 계속되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모로코인들은 그러한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인고와 극복의 의지로써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였던 것이다. 현실이 궁핍할 때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철학을 터득했으며, 금기의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구애로 사랑을 이루려는 진취적 생활의식을 구축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마그립 지역의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은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슬픈 사랑과 이별에 대한 탄식과 한숨이 섞인 노래가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려는 시도와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 충만감 등이 잘 나타난다.

사랑에 관련된 모티프는 마그립 지역 현대 음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튀니지 현대 음악의 경우 ‘Samai Dastakah’ 라는 노래는 파이잘 카루이(Fayçal Karoui)가 작곡한 곡으로서 현대적인 ‘사마이(Samai)’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이’란 필연적으로 8분의 10박자의 리듬으로 작곡되어야 하며, 악장과 악장 사이의 후렴을 포함하여 카나(khana)라는 형식의 4악장으로 구성된 오리엔탈풍의 음악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Lama bada yataththana(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아랍 문학 중 가장 아름다운 시들에서 선택한 아랍적이고 동양적인 음악의 전통적 유산이다. 이 음악은

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파이잘 카루이의 편곡은 이 음악에 젊음의 순수함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illi tad'ufat(당신이 원하는 것은 가버렸다)'라는 노래는 이별한 한 남자가 사랑을 속삭이던 과거의 아름다웠던 날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bah dha hbibti(이 사람은 나의 연인이예요)'는 튀니지의 전통적 음악 유산으로서 사랑하는 연인과 가까이 있을 때 저녁은 점차로 아름다워지며, 그녀가 우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h mil 'aynayn(아! 가득찬 눈동자여!)'는 아름다운 연인의 눈동자에 대해 검은 밤의 눈동자, 또는 푸른 하늘의 눈동자, 아니면 꿀의 색깔과 같은 카라멜 빛의 눈동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ma habetich(나는 사랑하지 않았네)'라는 노래는 튀니지의 전통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 하나이다. 가사의 내용은 '나는 더 이상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단 한번 사랑에 빠졌으며, 이 사랑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 타오르는 불과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나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samra ya samra(갈색 여인이여 오 갈색 여인이여)'는 갈색 피부를 가진 여인과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다짐하는 노래이다. 히자즈(Hijaz) 선법으로 작곡된 1960년대 유명한 히트곡이며, 많은 작곡가들의 찬사를 받은 곡이다.

“ eh ilgamal da ya wad ya Samara, ya majanin koulla ilhara  
 eh ilgamal da ya wad ya Samara, ya imjanain koulla ilhara kida  
 kida...  
 ilnaas koullaha majnoona beek Ilnaas koullaha 'a'yunha 'alayk  
 ilnaas koullaha majnoona beek Ilnaas koullaha 'a'yunha 'alayk.  
 bihalawtak ana, ana mihtarrah ya ya o la la kida kida Allaah.  
 kulla ma aqol li a'inyayya iy-qol 'ayni itqol ana shayfak tol  
 kolli ma qool li a'inyayya iy-qool A'aiyni itqool ana shayfak tool.

kolli ilnaas daybeen fi gharamouh  
galbi, eh, ana aalbi, anaa aalbi Izzay ma iyghish a'ala mahbouboh  
Eih ilgamal da ya wad ya samara, ya imjanain koulla ilhara  
Eih ilgamal da ya wad ya samara, ya imjanain koulla ilharakida kida  
kida,  
dah illi bahibbo dah illi bareedo..  
habak ilqalb wa malako biyadoo Howa dah koullou hayaati wi 'omri  
'omri  
eh 'omri eh ma itakhart 'ala mawa'edo.. ”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갈색의 연인이여... 온 동네 사람들을 미  
치게 만들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갈색의 여인이여... 온 동네 사람들을 미  
치게 만들지 이 토록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당신에게 머물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지..모든 사람들의 눈이 당  
신에게 머물지..  
당신의 달콤함에.. 나는 혼란스럽지... 오... 이토록.. 오 하느님..  
내가 내 눈에 말할 때 마다... 그는 말하지..  
내 눈이 말하지.. 내가 당신만을 보고 있다고..  
내가 내 눈에 말할 때 마다... 그는 말하지..  
내 눈이 말하지.. 내가 당신만을 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에 녹아들지..  
나의 가슴은 어찌나.. 내 가슴은.. 그의 사랑에 갈 수 밖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갈색의 연인이여... 온 동네 사람들을 미  
치게 만들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갈색의 여인이여... 온 동네 사람들을 미  
치게 만들지.. . 이 토록 이토록..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  
람이지...

내 심장을 가져가 그의 두 손으로 소유해버렸지

그가 바로 내 인생이지.. 내 생명, 생명이니...

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와의 약속에 늦지 않았지... )

또한 마그립 지역의 현대 인기 가수 샵 칼리드가 부르는 유명한 노래  
' 압둘 카디르('abdu al-Qādir)에도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o ‘abdulqādir ya bou ‘alam daq el hal ‘liya

dawi hali ya bou‘lam sidi rouf ‘liya

sidi ‘abdrahmane dir mejhoudek ou t’hazzam

o nta rajel qayem fi kh’dimek dir mziya

‘abdulqādir ya bou‘lam daq el hal ‘aliya

dawi hali ya bou‘alam sidi rouf ‘aliya

ya sidi boumedi’e o ana fi ardek m’amman

ya sidi boumedi’e ana fi ardek m’amman

ya sidi lhouari soultane elghali

ou chkini abdallah soultane el‘aliya

‘abdulqādir ya bou‘lam daq el hal ‘aliya

dawi hali ya bou‘alam sidi rouf ‘aliya

da‘wat dik llila yana dik lmablia

khallatni fi hira ana l’achra touila

da‘wat dik llila ya malik lmabliya

khallatni fi hira ana l’achra touila

‘abdulqādir ya bou‘lam daq el hal ‘aliya

dawi hali ya bou‘alam sidi rouf ‘aliya

hadak lwali wah r’wahe daouili hali

sidi 'abdrrahmāne daoui daoui daoui..'

( 오, 압둘 카디르.. 나의 주 .. 세상의 아버지여..

제 고통을 덜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왜 나의 가슴이 이렇게 아픈가요..당신의 세상은 평온한데..

사랑의 기쁨이 그리도 많은데.. 그녀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났

죠.. 단지 하룻밤이 지난후에..

오 압둘 카디르.. 세상의 주여.. 내 영혼의 주여..

나는 천국을 떠나 이 땅에 돌아왔죠.. 그녀의 품안에서 멀리..

기도하노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이 길어지기를..

오 압둘 카디르.. 세상의 주여.. 내 영혼의 주여.

내 아픔을 치료해주세요.. 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 4.3. 결혼식의 노래

사회생활과 관련된 모티프를 찾아볼 수 있는 마그립 지역 노래는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불리어지는 노래이다. 이 노래들은 서민가요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그립 지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 결혼이나 사랑에 관련 된 노래는 인간이 이러한 숭고한 감정을 알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노래이다. 결혼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관한 노래는 서민가요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약혼과 결혼에 관련된 노래는 한 사회의 중요 통과 의례인 약혼과 결혼 의식을 기념하고 축하할 때 함께 불리어지는 노래로서 관련된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이슬람은 독신주의보다는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무슬림들은 결혼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상대방을 물색하여 상의하고 결정한다. 이것은 이슬람 혈연의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들은 결혼 당사자

들의 행복 여부보다는 가족 간의 이해득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결혼은 지참금(마흐르)을 보내고 계약서가 교환됨으로써 성립한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경우 약혼이 성립되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예복을 사주고 결혼식 전야, 결혼식, 결혼 피로연 등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노래들이 불리어진다. 여자들은 ‘자가리드’라고 불리는 소리를 지르고, 악단이 흥겨운 노래와 연주로 흥을 북돋운다. 가벼운 음식을 대접하고 가수를 초청하여 늦은 밤까지 노래와 춤을 계속한다. 우선 친구나 가족 친지들이 모여 춤을 추고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나와서 춤을 춘다. 결혼에 관련된 노래들은 주로 결혼 의례와 그 준비 과정, 신부에 대한 묘사, 그녀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노래들은 주로 여성들이 신부 주변에 모여 부르는 노래로서 약혼이 발표되면서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 까지 며칠 동안 불리어진다. 다음은 모로코와 튀니지 지역의 결혼식에서 자주 불리어 지는 노래의 일부이다.

“ Etmakhtari Ya helwa ya zena  
Ya warda men gowwa gnena Ya ud oronfel ya arusa  
El ward dallel alena Esh sham‘ 'ayed hawaleki  
Wes-sehr bayen fi eneki En el-hasud ma lehash fiki  
Etmakhtari w mili alena Etmakhtari b-helwe awamek  
Arisek el-kheffa d-dahek Aref ghalawtek we ma'amek  
Ya badr nawwar hawalena  
El ward elahmar fe khudud Fattah we nawwar ala udek  
Wel-lela dih ketti hasudek Ya helwa tefdi be-enena...”  
(우아하게 걸어가세요.. 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여..  
오 정원에 핀 장미여.. 오 카네이션 꽃..아름다운 신부여..  
아름다운 꽃들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 지네..  
촛불들이 당신 주위에 펼쳐져 있네..  
당신의 두눈은 얼마나 매혹적이고 고풍적인지..

악마의 질투도 당신에게 해악을 줄 수 없지요..  
우아하게 걸어가세요.. 우리들 주위로..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걸어봐요.. 우아하게..  
당신의 멋진 신랑도 웃고 있네요.. 당신의 가치와 지위를 알고  
있지요..  
오 보름달 같은 여인이여.. 우리 주위가 환해지네요..  
붉은 장미가 당신의 뺨 위에 있네요.. 활짝 피어 당신의 몸을 환  
히 비추네요..  
오늘 밤 모두가 당신을 부러워하네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우리  
들의 눈이 멀도록..)

이 노래에는 주로 신부의 아름다움, 결혼식 피로연의 즐거운 풍경, 아름  
다운 신부에 대한 묘사, 그녀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 신랑의 기쁨, 행복  
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름달, 장미 꽃, 여러 가지  
꽃들에 비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악마의 질투가 느껴질 정도  
로 행복해 하는 신부의 미모와 행복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  
결혼에 관련된 모로코 지역의 관습을 보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결혼이 확정되면 결혼식과 피로연 등을 준비하게 된다. 결혼은 가정이 성  
립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이슬람에서는 이를 아주 기쁘고 축하해야  
할 일로 여긴다. 따라서 비밀스럽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기는 것이 허락  
되는데,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일상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결혼식 피로연의  
경우에만은 노래를 하는 것이 허락된다. 주로 신부의 친구나 여성 친지들  
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 평소에 성인 남성과의 접촉이 금지된 아랍 여성들  
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신들의 욕구를 노래를 통하여 분출할 수 있는 기  
회이다. 이러한 기쁨과 자유로움의 감정들이 모로코와 튀니지 지역 노랫말  
에도 잘 드러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아랍 국가들 중 마그립 지역 그 중에서도 모로코와 튀니지 지역의 노랫말을 통해서 서민 기층문화 의식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랫말에 나타난 성(聖)과 속(俗)의 표현을 찾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모로코, 튀니지인들의 의식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복종을 중시하는 모로코, 튀니지인들의 의식을 엿 볼 수 있었다. 성(性)에 관련된 주제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노랫말들이 대부분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순한듯하면서도 특유의 은유나 비유 등의 방법으로 사랑과 연민의 세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서기 7세기 이후 현재까지 중동세계 문명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아랍인의 사고와 의식구조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은 모로코와 튀니지 지역 서민들에게 여전히 거룩함(聖)의 인식(認識)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 기층문화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유일신 관, 신자의 이상적 덕목, 이슬람 교리 준수 등 이슬람 제도의 생활화는 모로코와 튀니지인들의 의식에 거룩함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노랫말을 통해 나타난 모로코와 튀니지인들의 의식 구조는 이슬람의 관용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종교적 신실함과 더불어 한편 성(性)에 있어서는 슬픈 사랑과 이별에 대한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려는 시도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보편적이고 순박한 의식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한국어 문헌>

- 공일주, 1996, 《아랍 문학의 이해》, 서울: 대한교과서.  
김창남 외, 1997, 《민족음악의 이해6》, 서울: 한울출판사.  
\_\_\_\_\_, 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출판사.  
사회만, 2000, 《아랍의 언어와 문학》,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윤은경, 2007, “이집트 노랫말을 통해 본 이집트인의 의식구조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이규철, 임병필, 2003, 《이슬람 아직도 딴 나라 이야기》,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희수, 이원삼, 2001, 《이슬람 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이슬람》, 서울: 청아출판사.  
이원용 역, 1980. 《아랍인의 의식구조》, 서울: 범문사.  
전완경, 2003. 《아랍의 관습과 매너(1)》,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전인평, 1999. 《아랍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과 문화.  
정수일, 2002. 《이슬람 문명》, 서울: 창작과 비평사.  
최영길, 1985. 《이슬람의 생활규범》,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_\_\_\_\_, 1997, 《이슬람문화의 이해》, 서울: 신지평.

### <외국어 문헌>

- 'Abbās, al-Jarāriy, 1980. *al-Zajal fī al-Maghrib*, Rabat: Maṭba'at al-'Amīnah.  
\_\_\_\_\_, 1983, *Muwashshahāt Maghribīyah*, Rabat: Maṭba'at Dār al-Nashr al-Maghribīy.  
'Abd, al-Man'am, 2004, Safā', *'Aghānī wa 'Alāb Sha'bīyah lil-'Atfāl*, Cairo: al-Sharikah al-'Ālamīyah lil-Ṭibā'ah.  
'Abd, al-'Azīz, & 'Abd, al-Jalīl, 1983, *Madkhal ilā Tālikh al-Mūsīqā al-Maghribīyah*, Kuwait: Maṭābi' al-Risālah.  
\_\_\_\_\_, 1992. *Mu'jam Mustalahat al-Musiqa al-'Andalusīyah al-Maghribīyah*, Morocco: Ma'had al-Dirasat qa al-Ta'rib  
\_\_\_\_\_, 2005, *al-'Anashid al-wataniyah al Maghribiyah wa Dawuruha fī Harakat al-Tahrir*, Rabat: Matbat al-Ma'arif al-Jadidah.  
Abū Bakr, bnud, 2003. *Durub al-Ghina' wa 'Amaliqat al-Fann*, Morocco: Matba'at al-'Amniyah.  
Abū Zayd, 'Aḥmad, 1972. *Dirāsāt Fī al-Fulkūr*, Miṣr: Maṭba'ah Dār Nashr al-Thaqāfah.  
Aḥmad, al-Tuwayli, 2002., *Tarikh Madinat Tunis*, Tunis: al-Sharikah al-Tūnisī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al-Kūlī, SamḤah, 1992. *al-Qawmiyah fī Mūsīqā al-Qarn al-Ishrīn*, Cairo: 'Ālam al-Ma'rifah.
- \_\_\_\_\_, 1990, *al-Irtijāl al-Mūsīqā wa Taqālīduh fī al-Sharq*, 'Ālam al-Fikr.
- al- Sadiq al-Rizqi, 1967, *al- 'Aghāni al- Tunisiyah*, Tunis: al- Dar al-Tunisiyah lilnashr.
- Amnon Shiloah, 1995, *Music in the World of Islam*, Detroit: Wayne State Univ. Press.
- Antonius, George, 1955, *The Arab Awakening*, London: Hamish Hamilton.
- 'Aziz al-shawan, 2005, *al-Musiqa liljami'*, Cairo: Maktabat al-'usrah.
- Būdinah, Muhammad, 1987. *Rawā'id al Shi'r al- Ghinā'i fī Tunis*, Tunis: al-Sharikah al-Tūnisi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_\_\_\_\_, 1995, *Shahirāt al-Tarab fī Tārīkh al-Ghinā' al-'Arabi*, Tunis: al-Sharikah al-Tūnisi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_\_\_\_\_, 1997. *al- 'Aghāni al- Khālidah*, Tunis: al-Sharikah al-Tūnisi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_\_\_\_\_, 1999, *al-Mawā l fī al-Ghinā' al-'Araby*, Tunis: al-Sharikah al-Tūnisi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_\_\_\_\_, 1999, *'usul al-Musiqa wa Mustalahātiha*, Tunis: al-Sharikah al-Tūnisiyah lilNashr wa Tanmiyat Funūn al-Rasm.
- Fathi Zaghadah, 2001, *Fi al-Musiqa*, Tunis: al-Dar al-'Arabiyyah lilKitab.
- Habib Hassan Touma, 2003. *The Music of the Arabs*, London: Amadeus Press
- Harrell, Richard S, 2006, *A Dictionary of Moroccan Arabic*,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Ḥasan al-' akrot, 1984. *al-'Intāj al-Musiqa al 'arabi qadiman wa hadithan*, Tunis: al-Dar al-Tunisiyah lilnashr.
- Kamal al-Nāji (1992). *Turāth al-ghinā' al 'arabi*, Dār al- shuruq.
- Khawajah 'Ahmad, 1998, *al-Dhākirah al-Jamā'iyah wa al-Tahawwulāt al-'Ijtimā'iyah min Mir'āt al-'Ughniyah al-Sha'biyah*, Tunis: Kulliyat al-'Ulum al-'Inṣā niyah wa al-'Ijtimā 'iyah.
- Muhsin Mustafa, 2005, . *Musiqa 'Asifi* , Morocco: Rabat Net.
- Rakuk 'Allāl, 2000, *al-Ghina' al-Sha'bi al- Maghribi*, Morocco: Jam'iyat 'Asifi lilBaḥth wa al-Waṭha'iḳ.

2005년 6월 17일, “아랍 첫 여성 연주단 ‘엘 아지페트’ 내한공연”, 『한겨레 신문』

<http://almashriq.hiof.no/base/music.html>

마그립 지역 노랫말 텍스트를 통해 본 마그립 인의 의식구조 연구 253

<http://fp.arizona.edu/mesassoc/Bulletin/reynolds.htm>

<http://arab-music.tripod.com/>